

번호: PO-EP-045					
제 목	서울시 일부지역 취학 전 아동의 천식발병 관련요인에 관한 단면조사연구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asthma and relative factor among the pre-school children, Seoul				
저 자 및 소 속	한소희1), 김동현2)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 SH Han1), DH Kim2) 1)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Hallym University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b>목적:</b> 국내외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천식은 일단 발생하면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병인적 특징 외에 증상의 심화 정도에 따라 성장발육 및 일상생활에까지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본 연구는 국제소아천식알레르기학회(ISAAC: 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에서 개발한 설문을 활용한 단면조사연구를 통하여 취학전 아동의 천식발병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소아천식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p> <p><b>방법:</b>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일부 주택지역 소재 어린이집(16개 기관) 및 유치원(7개 기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아동,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아동의 건강, 환경상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ISAAC(1992년) 기준에 의거 (1) 아동이 천식을 앓고 있으며 지난(최근) 12개월 이내에 적어도 한 가지의 증상이 있었던 아동 또는 (2) 지난(최근) 12개월 동안에 9가지 천식 증상 중 4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72명)을 천식군으로 정의하고, 9가지 천식증상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을 비천식군(466명)으로 정의하였다.</p> <p>각 구간 차이는 student t-test, chi-squared test 및 fisher`s exact test를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소아천식 위험도는 chi-squared test 결과 p-값이 0.25 이하인 변수와 선행연구에서 관련성이 인정된 변수를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교차비(OR) 및 95% 신뢰구간(95% CI)을 제시하여 평가하고, 요인 수준별 소아천식 위험도의 증가 또는 감소경향은 회귀분석에서 산출되는 회귀계수(<math>\beta</math>)로 평가하였다.</p> <p><b>결과:</b> 23개 기관에 배부한 총 1,129부의 설문지 중 686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61%). 한 가정에서 두부의 설문지가 작성된 경우에는 순위형제의 설문응답내용만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ISAAC 기준에 의하여 천식군 또는 비천식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38명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반응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math>p=0.0034</math>),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족 중 천식 경험이 있는 그룹의 경우 소아천식 위험이 4.6배(95% CI: 2.03-10.47) 높게 조사되었고, 과거 털이 있는 애완동물을 사육한 경험이 있는 그룹의 경우 소아천식 위험이 2.6배(95% CI: 1.11-5.97)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독주택 거주 그룹에 비하여 연립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소아천식 위험은 3.7배(95% CI: 1.65-8.38), 2.5배(95% CI: 1.15-5.97)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1년에 20갑 이상 흡연하는 경우 소아천식 위험은 2.5배(95% CI: 1.19-5.33)로 자녀의 천식발병에 아버지의 흡연이 관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 <p><b>결론:</b>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나이, 부모의 교육수준, 애완동물 사육, 주택의 형태, 아버지의 흡연정도가 아이의 천식증상 유발에 있어 영향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향후 아동의 세부적인 환경상태를 고려한 대규모 단면조사연구와 임상적 자료에 근거한 환자대조군 연구 및 전향적 연구 등 일반화된 소아천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다</p>					